

첨단 원자력 융합기술센터 구축 탄력

전북대, 김태환 교수팀 '미래원자력기술 시설·장비 구축사업' 선정

전북대학교 김태환 교수(사진)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에서 추진하는 '미래원자력기술 시설·장비 구축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전북대는 첨단 원자력 융합기술센터를 구축할 예정이어서 김 교수팀의 이번 사업 선정으로 미래 재료 분야 연구와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안정적인 기반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 사업은 원자력 연구시설과 첨단



이를 통해 전북대는 미래 원자력 전문기술 인력 수요에 대응하는 연구장비를 구축하고 첨단화를 지원한다. 장비의 공동 활용을 통해 미래 원자력 기술 분야의 연구인력 양성 및 연구개발 역량 강화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구·교육용 시설과 장비를 구축하고, 이를 활용한 인력양성과 산학연이 공동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전북대는 이번에 연구·교육용 시설·장비의 구축 및 첨단화 지원 분야에 선정돼 엑스선소각산탄 장치, 엑스선 회절장치, 엑스선 반사율측정장치, 엑스선투과검사장치, 핵중분석계측장치 등 5기의 첨단 원자력 융합기술 활용 장비가 구축된다.

이를 위해 전북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3년 간 15억 원을 지원받아 2022년까지 공과대학에 미래 재료 연구를 위한 첨단 원자력 융합기술 이용 관련 연구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김태환 교수는 "이 사업은 첨단 원자력 융합기술 기반의 산학연 공동이용 체계와 공동연구 기반 구축과 첨단 방사선 융합기술 이용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것"이라며 "첨단 장비와 이용 센터를 안정적으로 구축해 전북대가 미래 재료 분야 연구와 인재양성의 메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고교학점제 대비 교사 전문성 강화

전북교육청, 도내 16개교 대상 'A-STEP' 연수 실시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이 고교학점제 관련 교사 전문성 강화에 나섰다.

10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연수를 희망하는 도내 16개 고등학교를 선정해 고교학점제 'A-STEP' 연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고교학점제 'A-STEP' 연수는 오는 2022년부터 일반고에 일부 도입되는 고교학점제를 대비하기 위해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고 진로에 맞는 과목을 선택해 이수할 수 있도록 진로학업설계 지도(Academic Advising)에 대한 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지원하기(To Support Teacher's Professionalism) 위함이다.

오는 22일 전주중앙여고를 시작으로 8월 중순까지 각 학교로 직접 찾아가 진행한다.

주요내용은 ▲진로학업설계 지도에 대한 교사의 역할 ▲자기이해/진로탐

색 검사 도구의 해석과 활용 ▲진로정체감/성숙도 활용 방안 ▲직업카드/학과카드 활용 방안 ▲진로별 학업계획 설계 지도 ▲진로학업 관련 학부모 상담의 실제 등이다.

도교육청은 2021학년도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설계 지도를 위해 1,2학년 담임교사의 참여를 권장했으며, 교사의 학생 학업설계지도 전문성을 전교사가 갖출 수 있도록 연수기회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생이 자신의 진로에 따른 교육과정을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교사의 전문적 역량이 요구됨에 따라 고교학점제 교육과정을 대비한 전 교원의 진로학업설계 지도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며 "학생 한 명 한 명에 중심을 둔 맞춤형 지도 시스템을 구축하고, 고교학점제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주요내용은 ▲진로학업설계 지도에 대한 교사의 역할 ▲자기이해/진로탐

색 검사 도구의 해석과 활용 ▲진로정체감/성숙도 활용 방안 ▲직업카드/학과카드 활용 방안 ▲진로별 학업계획 설계 지도 ▲진로학업 관련 학부모 상담의 실제 등이다. /장은성기자

전주대 교수노조 출범

전주대학교 교수들은 10일 교수노동조합 창립총회를 갖고 법 통과 이후 전국 최초로 교수노조를 출범시켰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교원노조법 개정안이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전국 대학들의 높은 관심 속에 진행된 전주대학교 교수노동조합 창립총회에 정세균 국무총리가 축전을 보냈고,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안민석 국회의원, 박홍근 국회의원, 김희재 국회의원, 김승수 전주시장, 권익현 부안군수 등이 출범을 축하했다.

코로나19로 생활 속 거리두기를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개회사 경과보고에 이어 초대 교수노동조합 위원장으로 오재복 교수(행정학)가 선출됐다.

오재복 위원장은 "133명으로 출범하는 노조지만 더 많은 교수들의 참여로 교수사회의 단합과 자존심을 회복하는 데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며, "사회 민주화와 사회적 가치가 드높아지는 대학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전주대학교 성품채플 이진호 교수팀이 학생들을 직접 찾아 나서는 2030 프로젝트, 전주대가 간다'를 진행한다. 지난 6월 1일부터 5일까지는 전주, 군산지역 학생 5명을 만났다. 학생들과 카페와 맛집도 가고 그들에게 선물도 전하며, 비대면 강의의 어려웠던 교재와 만남, 고민 해결의 시간을 가졌다.

음주운전 예방·홍보 디자인 공모작 온라인 투표

전북교육청, 17일까지 진행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공모를 통해 접수된 음주운전 예방·홍보 디자인에 대해 온라인 투표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온라인 투표는 PC와 모바일 등을 통해 오는 17일까지 진행된다.

PC를 통해 참여하고자 할 때에는 공지된 URL에 접속해 투표하면 된다.

모바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네이버에 접속, 그린닷메인화면 중앙 초록색 동그라미를 클릭한 뒤 왼쪽의 멘즈, QR/바코드를 선택한 뒤 QR코드를

인식 후 투표하면 된다.

공모작품은 총 16점으로 공모자의 제안설명과 디자인을 자세히 보고 싶다면 도교육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전북도교육청 음주운전 예방·홍보디자인 공모작 온라인 투표 안내'를 참고하면 된다.

투표는 1인 2표까지 가능하며, 투표 후에는 정정 및 이중투표가 불가능하다.

다득표순으로 최종 5작품을 선정, 2차 현장투표 및 심사위원회 심사 등을 합산해 오는 7월 8일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전북교육청, 장애학생 희망드림 직업실습 운영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이 2020년 교육기관 내 장애학생 희망드림 직업실습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장애학생의 직무 능력 향상과 진로직업교육 활성화, 장애학생들의 직무 개발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앞서 1차로 41명을 선발했고, 2차로 오는 12일까지 34명을 모집할 예정이다.

사업에 참여하는 장애학생들은 오는 7월 6일부터 12월 말까지(기간 중 100일 근무) 장애학생 배치를 희망하는 도교육청 각 실·과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및 각급 학교에서 근무하게 된다. 직업실습생은 배치되는 해당 기관의 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되며, 4대 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또 장애학생 배치를 희망하는 각 기

관 및 학교에서는 6월 중으로 반드시 직업실습 희망학생의 실습내용·실습기간·일정·사전교육 등의 실습계획을 수립하고, 현장실습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실습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해야 한다.

직업실습에 참여하고자 하는 학교에서는 학교 및 교육기관에서 직업실습생으로 근무할 장애학생을 파악해 교육기관 내 장애학생 희망드림 직업실습' 참여 학생 명단 및 장애인복지카드 사본을 오는 12일까지 도교육청 교육혁신과로 제출하면 된다.

참여대상은 특수학교는 전공과 2학년(참여자가 없을 경우 전공과 1학년도 가능), 특수학급 및 특수학급 미설치 고등학교는 3학년이다.

/장은성기자

새내기 만나러 전국곳곳 '전주대가 간다'

성품채플 이진호 교수팀, 자전거로 이동 '소통의 시간'

전주대학교 성품채플 이진호 교수팀이 학생들을 직접 찾아 나서는 2030 프로젝트, 전주대가 간다'를 진행한다

2030 프로젝트, 전주대가 간다'는 이 교수와 선교지원실 오황재 조경석 팀원이 학교에 오지 못하는 학생들을 직접 찾아가 고민을 나누고 교재의 시간을 갖는 활동이다

비대면 채플 강의를 진행하면서 신입생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전국 30명의 학생들을 직접 찾아간다.

지난 6월 1일부터 5일까지는 전주, 군산지역 학생 5명을 만났다. 학생들과 카페와 맛집도 가고 그들에게 선물도 전하며, 비대면 강의의 어려웠던 교재와 만남, 고민 해결의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진호 교수팀은

전주대에서 군산까지 약 44km의 거리를 자전거로 이동하며 그 과정을 영상으로 기록해 학생들과 함께 나누기도 했다.

전소진 학생(사회복지학과)은 "영상으로 봤던 교수님과 선생님들이라서 그런지 실제로 배도 정말 친근하고 재밌다"며 "이런 계기로 교수님과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즐겁고 좋은 기회였다"고 말했다.

지난 9일에는 게임콘텐츠학과 신

입생을 찾아 부산까지 약 260km를 자전거를 타고 이동했다. 특히 유튜브 브로 생중계하며, 교직원과 교회 성도를 대상으로 1km 이동에 100원씩 후원을 받는 '코사까(코로나를 뚫는 사이클) 장학금 모금 활동'을 통해 힘들어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도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채플 과목은 코로나19로 더 돋보이는 과목이 됐다. 이진호 교수팀 특유의 학생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온라인 강의에도 그대로 녹아나 학생들이 꼽는 대표적 '고퀄' 콘텐츠의 출입방은 라인 강의 중 하나로 인정받기도 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